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동안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나 반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분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믿지 않고, 그 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석류와 무화과 등 그 땅의 과일과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신1:25).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견고하였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갔던 12명의 지휘관들이 직접 본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보고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가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거인들이었으므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와 같은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고생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에게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자신들은 그 땅에 들어 가다가 죽고 아내와 아이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원망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갈 지휘관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10명의 지휘관들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였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서 받으라'는 식의 말씀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멀리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아직 바로에게 가지 않았을 때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출6:8).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출33:3). 뿐만 아니라 모세와 백성들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언약을 주셨을 때,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출34:11)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러한 반응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다고 말씀합니다(민13:32).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민14:11). 하나님을 멸시하고(민14:23) 원망하며(민14:27) 반역하였다(민14:3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

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DNA가 또 발동합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올라갔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경솔히" 올라갔다(신1:41)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었다(신1:43)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14:43, 신1:42).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고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13:30) 선포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민14:8-9).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대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모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사는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끝까지 그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예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